문학실험실
미지의 언어 탐구

보도자료	2021 6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47 한려빌딩 302호 | 전화 02-765-9682 | 팩스 02-766-9682
휴대전화 010-4212-0752 | 이메일 munhak@silhum.or.kr | 홈페이지 www.silhum.or.kr

제7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시 / 김언

소설 / 윤해서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7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1998년 『시와 사상』을 통해 등단해 기존의 서정적인 시 문법에 의구심을 품으며 세계와 언어의 관계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로서의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해온 김언 시인과, 2010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와, 소설 쓰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여온 윤해서 작가가 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인 소설가에게는 김현문학패와 함께 각각 1,000만원(시 부문), 1,500만원(소설 부문)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금년도 시상식은 10월 1일(금)에 거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후 결정하여 다시 알리기로 했다.

김언—고착된 언어와 세계를 새로운 관계로 연동시키려는 부단한 노력

김언 시인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나, 1998년『시와 사상』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숨쉬는 무덤』『거인』『소설을 쓰자』『모두가 움직인다』『한 문장』『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 산문집으로『누구나 가슴에 문장이 있다』, 시론집으로『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등을 펴냈다. 미당문학상, 박인환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제도 없고 인칭도 없이, 타인의 말을 듣는 자의 소설

윤해서 소설가 1981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2010년『문학과사회』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코러스크로노스』, 중편소설『암송』『그』, 장편소설『0인칭의 자리』를 펴냈다.

* 인물 이미지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7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_김현 31주기를 맞이하며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성기완 시인과 한유주 소설가를, 제2회 수상자로 이제니 시인과 김태용 소설가를, 3회 수상자로 강정 시인과 서준환 소설가를, 제4회 수상자로 신영배 시인과 백민석 소설가를, 제5회 수사자로 김경후 시인과 박솔뫼 소설가를, 제6회 수상자로 신동옥 시인과 김숨 소설가를 선정한 바 있다.

김현문학패 시행 7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김정환, 김태환, 김형중, 조강석, 이인성)는 규정에 따라, 1) 2021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73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18~2020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31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7회 수상자로 김언 시인과 윤해서 소설가를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제7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김언—고착된 언어와 세계를 새로운 관계로 연동시키려는 부단한 노력

김언 시인은 언어와 세계 양쪽을 모두 운동시키는 시인이다. 달리 말하자면, 언어와 세계 양자가 새로운 관계로 연동하도록 부단하게 움직이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언은 스스로 n개의 세계와 n-1개의 언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간극이 그의 시의 풀무이다. 초기 시에서 기존 서정의 문법에 어깃장을 놓는 방식으로 한 발 움직여본 시인은 『거인』에서 본격적으로 자기 세계를 개진시키는데 이 세계는 곧 방정식의 세계이다. 정해진 답을 구하고자 하는 언어 표현이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계속 재조정하는 문장들이 연신 등장하는 시집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적 질문은 『소설을 쓰자』에 와서 그 극단에 이를 때까지 경주된다. 내가 쓰는 말이 무엇인가를 연신 묻는 이가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을 세계는 없다. 그러니 어쩌면 『모두가 움직인다』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뿌리 없음'의 감각이 극대화된 시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 상실이 아니라 세계와 언어의 동시 실종이다. 언어에 의해 형태 잡히는 세계도, 세계를 재현하는 언어도 없다. 어쩌면 극단이고 어쩌면 기초이다. 혹은 영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해체나 파격이 아니라 모험에 가깝다. 아니면, 이렇게 간단히 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언은 독자로 하여금 삶을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시인이다. 과대적합 혹은 과소적합의 언어에 의해 세계가 다양하게 눈앞에 육박한다. 가상세계니 멀티버스니 하는 것이 운위되는 것에는 새 세계에서 낫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결부되어 있지 않겠는가. 김언의 시에도 새 삶의 의지가 걸려 있다. 언어의 삶과 세계 자신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모두 움직이며 부풀고 있다. 김현 문학패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두껍게 살아보자는 권유이다.

윤해서—시제도 없고 인칭도 없이, 타인의 말을 듣는 자의 소설

윤해서의 주인공들은 한국어를 의미화 이전에 오감으로 향유한다. 한국어와 한국 문자를 처음 대하는 이방인 초심자의 자리에서 소설 쓰기… 그러자 한국어가 돌연 이국의 문자처럼 낯설어지고, 그 물질성이 도드라지고, 독자는 결국 눈에서 두뇌로 전달되는 신경회로만 아니라 오감으로 문장들을 감각하며 읽어야 한다. 아직 시제를 배우지 못한 한국어 초심자처럼, 윤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에 따른 기억들의 연쇄를 고려하지 않는다. 실은 우리들의 기억이 그런 방식으로 지속할 텐데, 다만 거기 인과를 부여하고 순서를 부여하는 것은 소설의 오래된 짐이자 필요 폭력인 '서사'일 것이다. 따라서, 쓸쓸하고, 허전하고, 반짝이고, 섬뜩한 그토록 많은 서사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윤해서의 소설들에서 어떤 '긴 이야기'로 정렬된 기억들의 연쇄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민주적'이란 말에 부합한다. 읽으면서 사라지는 작품,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작품,

그러나 오감에 남아 방어흔처럼 오래오래 몸에서 떠나지 않을 작품… 어떤 작가에게 김현의 이름으로 문학패를 수여한다는 일은 분명 수행적이다. 대체로 시류를 거스르는 일이어야 하고, 포상보다는 독려의 의미가 커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현이 종종 상담자의 역할을 자임했을 때, 그는 작가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하는 바를 알아보고 가야 할 길을 독려하곤 했다. 그는 죽었으니 이제 문학패로 그 일을 한다. 저 '어떡하죠?'에 답할 참이다. 주저앉고, 쭈그려 앉고, 걸터앉고, 마주 앉고, 나란히 앉은 수십 수백(원리상 무한대)의 사람들. 오로지 정물처럼 고독하게 앉아 있다는 공통점으로만 묶을 수 있는 무인칭의 그들. 아마도 작가의 기억 속에서 '불쑥, 문득, 불현듯' 같은 빈도 부사와 함께 출현했을 그들이 작가에게 요청하는 바는 사연이고 말이었으리라. 말의 몫이 없는 그 많은 이들이게 사연과 말을 주었으니 타인의 말을 듣는 자, 윤해서는 이제 염려를 덜어도 될 듯하다.

선정위원 **김정환 (시인)**
김태환 (문학평론가,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문학평론가, 조선대 국문과 교수)
이인성 (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
조강석 (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김현문학패 소개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

문학실험실은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비평가 고 김현의 25주기(2015년 6월 27일)를 맞아, 그를 되새기고 기리며, 그의 이름으로 한국문학의 진정한 질적 진화를 위해 '뜨거운 상징'(김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을 제정·시행키로 결정하였다. '김현문학패文學牌'는 문학상으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상을 통해 한국문학의 한 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문학적 특성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나갈 것이다('패'에는 패거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우선, 이 문학패는 김현의 미래지향적 문학관에 근거를 두고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한국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정신을 기본적인 선정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일정한 선정 조건 아래(아래 참조), 한 해 동안 추수된 단일 작품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한 '작품상'이 아니라, 한 작가의 전 작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의 성격을 띤다.

시행 규정

본 '김현문학패'는 위의 목적에 따라 매년 시인·소설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기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000만 원/소설 1,5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그 수여 대상자는, (1)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만 48세(김현의 타계 나이) 이하이며, (2) 등단 후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하였고, (3) 그중 가장 최근의 저서를 선정 연도 전해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간한 시인·소설가로 한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을 장르별로 분리하지 않고 선정 과정을 합동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수여 후보 자격이 3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이나 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선정자와 선정 이유만을 발표한다.

시행 절차

매년 1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인·소설가의 명단과 출간 저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수의 추천위원들에게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선정위원회가 이를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압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선정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6월 말 김현 기일에 즈음하여 최종 선정자를 결정 발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9월 말에 시행한다.

역대 수상자

제1회 (2015)	시 성기완	소설 한유주
제2회 (2016)	시 이제니	소설 김태용
제3회 (2017)	시 강정	소설 서준환
제4회 (2018)	시 신영배	소설 백민석
제5회 (2019)	시 김경후	소설 박솔뫼
제6회 (2020)	시 신동옥	소설 김숨
제7회 (2021)	시 김언	소설 윤해서

I942~I990

1942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한 김현은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1962년 『자유문학』에 「나르시스 시론」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곧 김승옥・최하림 등과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게 되고, 그의 열정적 동인 활동은 이후 『사계』, 『68문학』 등을 거쳐, 1970년에 김병익・김치수・김주연과 함께 계간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고 1975년에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하는 문학사적 결실로 맺어진다.

1971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취임한 후 서울대 인문대 불문과로 옮겨 재직하면서, 그는 프랑스 문학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 비평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새 바람을 몰고 온 『한국 문학사』(김윤식 공저)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비롯하여, 『상상력과 인간』, 『사회와 윤리』로부터 『문학과 유토피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책읽기의 괴로움』 등을 통과해 마지막 『말들의 풍경』에 이르는 일련의 평론집들이 그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정치한 분석・해석을 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 영역에서는 『프랑스 비평사』를 시발점으로 바슐라르, 제네바학파, 르네 지라르, 미셸 푸코 등의 비평 세계와 방법론을 추적하는 역작 연구서들과 편서들이 그의 넓은 문학적 관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발병한 간염이 서서히 그의 몸을 허물어나갔지만, 그의 문학적 열정과 사명감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집필・연구 활동 속에 간염은 기어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1990년, 때 이른 그의 죽음을 몰고 왔다. 향년 48세.